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루치온 '클렌징폼'

# 고체 형태 휴대용 클렌징폼으로 미백시장 공략

화장을 닦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크림 제형으로 물에 묻혀 거품을 내는 클렌징폼, 화장솜에 적셔 얼굴을 닦는 클렌징워터, 물기 없이 쓸 수 있는 클렌징오일 등이 주로 많이 팔린다. 모두 큰 용기에 담겨 팔리는 제품들이다.

루치온은 기존 클렌징폼을 굳혀 휴대가 간편하도록 새로운 제형의 상품을 만들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 내놓은 '클렌징폼'이다. 언뜻 보면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화장솜 같다. 한 장을 집어 물을 묻히면 쫄쫄한 거품으로 변한다.

이상정 루치온 대표는 "비닐로 한 장씩 포장돼 있고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워 들고 다니기 간편하다"며 "이런 형태의 클렌징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건 루치온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클렌징폼 '히트'에감 이 대표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다가 창업에 뛰어들었다. 의약품 원료의 기능을 뼈삭하게 알고 있었다. 피부과에서 실제로 쓰는 원료를 화장품에 활용하면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미백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루치온을 만든 이유다. 루치온에서 내놓은 화장품에는 모두 미백 기능성 원료인 글루타치온이 들어 있다.

사명인 루치온(Lutione)도 글루타치온(glutathione)에서 따왔다. 이 대표는 "일명 백옥주사 등 피부과 시술에 활용되는 원료"라며 "해외에서 한국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미백 전문 브랜드가 없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미백 기능성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현재 루치온의 대표 상품은 지난해 2월 내놓은



이상정 루치온 대표가 대표 제품인 '클렌징폼'을 소개하고 있다.

나수지 기자

## 휴대 쉬워 운동·여행할 때 편리 샴푸·린스 등 포트폴리오 확대 러시아·일본 등 해외시장 '노크'

클렌징폼이다. 이 대표는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이, 대용량 상품보다는 작은 상품이 인기를 끄는 트렌드를 보면서 작은 단위로 나눈 화장품 형태를 고민했다"며 "클렌징을 한번 쓸 수 있는 용량 정도로 줄이면 용기가 필요없도록 화장품을 굳혀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클렌징폼은 10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한 박스로 묶어 3000원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샴푸 린스 등 고체형 포트폴리오 확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화장품을 굳히는

기술 개발은 쉽지 않았다. 물에 잘 녹지 않거나, 원하는 모양이나 색을 내기 어려웠다. 이 대표는 "200도 이상 열을 가해 수분을 날리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컸다"며 "수차례 같은 공정을 반복해 원하는 향과 모양을 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주요 타겟은 여행하거나 운동 등 씻을 일이 생길 때 가볍게 짐을 챙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다. 이 대표는 "집에서 한자리에 두고 쓰는 용도보다 클렌징폼을 들고 다닐 일이 잦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것"이라며 "고체형이라 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처음 개발한 상품인 만큼

### 루치온

설립	2017년 1월
위치	경기부천시
주요 제품	클렌징폼
특징	크림, 오일 등 제형인 기존 클렌징폼과 다르게 1회분을 굳힌 제형. 물에 닿으면 거품으로 변하는 클렌징폼
매출	12억원 (2018년)

일본 등 해외로 판로를 더 넓힐 계획도 있다. 이미 러시아 대만 베트남 등지에 있는 드러그스토어에 수출 중이다. 이 대표는 "일본 소비자들은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작은 마스크팩 모양 디자인 덕에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루치온은 일본 100엔숍인 '칸두'를 비롯한 편의점, 드러그스토어에 입점을 타진하고 있다.

클렌징폼이 시장에서 안착한 후엔 화장품을 굳히는 기술을 활용해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샴푸 린스 보드워시 등을 굳힌 제품이 이미 개발을 마쳤다. 지난해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루치온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올해 4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화장품을 굳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이라며 "클렌징폼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휴대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이메일' (si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년여 동안 폐쇄된 공장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9번째 개성 방북 신청 이번에는 갈 수 있을까

## 뉴스카페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개성공단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통보받은 뒤 북한에서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했다. 건물, 설비, 제품 등 78억원가량의 회사 자산이 개성공단에 묶여 있지만 3년여 동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 개성공단기업들이 방북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대표는 30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후로부터 오늘까지 아홉 번째 방북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앞선 방북 신청 요구에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유보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북 예정일은 오는 9일이다. 200여 명의 개성공단 기업인이 낸 방북 신청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심재원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김중대의 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합류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오는 6월 미국 의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가동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현지 언론 인터뷰, 미상공인간담회 등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 "획기적인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제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 테팔이 인수한 WMF, 천연소재로 한국 진출

(獨 1위 주방용품업체)

## 맛·향·영양소 오래 보존

166년 된 독일의 고급 주방용품 WMF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스테판 슈스터 WMF그룹 브랜드 부사장(사진)은 30일 서울 효자동 아름다기에서 열린 'WMF 한국 시장 진출 간담회'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주력 신제품 '퓨전테크' 시리즈를 출시하며 한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53년 설립된 WMF는 세계 최초의 압력솥 출시, 세계 최초 전자동키퍼미션 개발 등의 기록을 갖고 있는 독일 1위 주방용품 제조업체다.

WMF는 테팔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생활가전 기업인 그룹세브에 2016년 인수



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총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WMF는 앞으로 그룹세브 한국지사에서도 직접 한국 시장을 공략

할 계획이다.

이날 선보인 신제품 퓨전테크는 석영, 장석 등 30개 이상의 천연 미네랄을 1300도에서 녹인 뒤 특수 강철을 결합해 제작했다.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보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잘 긁히거나 벗겨지지 않는다. 열 전도가 빨라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며 조리 후에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천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의 맛과 향, 영양소를 오래 보존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즈쿼츠, 플라티늄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했으며 독일에서 생산된다.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50만원 선이다.

김정은 기자 ikesmile@hankyung.com

# G밸리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16일 구로 G밸리컨벤션센터

G밸리(구로가산디지털밸리)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구로동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취업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치과용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의료가기 제조업체인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건강기능식품업체인 휴림 등 50개사가 참가한다. 이 중 현장 참가 기업이 25개사, 간접 참가 기업이 25개사다. 산단공 관계자는 "간접 참가 기업은 현장 게시판에 채용 내용을 부착한 뒤 지원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132개 중소벤처기업 성공스토리 발간

## 중진공 'CEO의 노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132개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이야기를 엮어 《CEO의 노트》 시리즈(총 5권·사진)를 발간했다.

132개사의 성공 스토리를 1권 '꿈·탐·정년창업 이야기', 2권 '기업 한류의 꿈, 글로벌기업 이야기', 3-5권 '지속적인 성장, 혁신기업 이야기'로 나눠 수록했다. 끝없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혁신 경영 노하우를 들려준다.

1권에서는 세계 최초로 휴대용 무선조음과진단기를 개발한 힐세리온 등 성공한 벤처기업을 이끄는 CEO 23명의 정언기를 소개한다. 2권에서는 세계적인 임플란트



제조사로 성장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중소기업 CEO 30인의 해외 시장 도전기를 담았다. 3-5권에서는 농부 3명이 창업해 세계적인 인 '코스트코'의 정식 협력업체로 등록된 데 이어 전 세계에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 등 혁신성장의 꿈을 이룬 CEO 79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CEO의 노트》 시리즈(1만5000원)는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수익금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말레이시아 ACMAR INTERNATIONAL & PRIVATE SCHOOL

## 한경텐아시아 와 함께 하는

# 말레이시아 엑마국제학교 영어캠프 & 인턴십 코스 교육생 모집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미국식 영어교육 프로그램, 최신식 호텔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K팝·뷰티 아티스트 스쿨과 다양한 액티비티, 진학상담까지 한번에

문의전화  
**1833-9835**  
www.iebedu.com

- 모집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주요과목 : 영어 원어민 교사 정규수업 / 다이어리 쓰기 / 회화 / 퀴즈 / 영어 드라마 표현력 수업 / 프리젠테이션 등  
\*모든 캠프 참여 과정은 SNS를 통해 부모님들과 실시간 공유
- Activity : 골프 / 문화 탐방 / 흥밋거리 / 캔드마크 / 재래시장 / 쇼핑물 관광 / 생동이탈당 과학관 · 바투동굴 견학 등
- 인턴십 코스 : 호텔 · 서비스업 등 엑마(ACMAR)그룹 계열사 직업체험(선택)
- 교육일정 : 2019년 7월 13일 ~ 9월 7일 / 4주 · 6주 · 8주 중 선택
- 교육장소 :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클랑 내 엑마국제학교 및 엑마호텔
- 특 전 : 1. 선착순 30명 항공권 지원 (5월 20일까지)  
2. 성적 우수자 상위 30% 국내 · 해외 대학 진학 무료 컨설팅 (지양회교육연구소팀, 아이비리그 대학진학팀)  
3. 성적 우수자 상위 2% 해외 대학 진학 시 대학장학금 지원

교육비 : 4주-396만원 / 6주-594만원 / 8주-별도 상담 (항공료별도)  
계좌번호 : KB국민은행 805937-04-008177 (주)아이비버  
상담메일 : IEBEDU001@gmail.com / www.iebedu.com

한경텐아시아

ACMAR INTERNATIONAL SCHOOL

IEB 주니어아이비